

독일 코로나19 백신 개발 동향

2021년 4월 26일 (KIST 유럽연구소 변재선 책임연구원)

1. 미국 보건당국 존슨앤존슨 승인 결정 (Entscheidung der Behörden, Grünes Licht für Johnson & Johnson in den USA)

생성기관

Tagesschau

원문 작성일

2021-4-24

원문 링크

<https://www.tagesschau.de/ausland/amerika/usa-johnson-und-johnson-impfungen-101.html>

- 미국 즉시 얀센 백신 접종 재개 권장
- 미국 FDA와 CDC 보건당국은 개별 혈전증 사례 이후 일시 접종 중단되었으나 미국 제약사 Johnson & Johnson의 코로나 백신 재사용에 앞장서고 있음
 - CDC가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J&J 얀센 백신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백신의 효과가 위험을 능가하는 것으로 정당화됨
 - FDA의 긴급 승인을 근거로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게 백신 접종이 권장됨
- 유럽의약품청(EMA) 또한 미국 혈전 사례 조사한 이후에도 3월부터 EU에서 승인된 J&J 얀센 백신의 지속 사용 권고를 고수하겠다고 발표함

2. 다음 주 독일에서 접종 개시, 누가 얀센 백신을 맞나? (NÄCHSTE WOCHE GEHT'S IN DEUTSCHLAND LOS, Wer kriegt die erste Johnson & Johnson-Spritze?)

생성기관

Bild

원문 작성일

2021-4-25

원문 링크

[https://www.bild.de/ratgeber/gesundheitspolitik/johnson-johnson-spritze-wer-kriegt-die-erste-einmal-impfung-76185206.bild.html](https://www.bild.de/ratgeber/gesundheit/gesundheitspolitik/johnson-johnson-spritze-wer-kriegt-die-erste-einmal-impfung-76185206.bild.html)

- 독일 노숙자에게 얀센백신 접종 예정
 - 독일에서 인구 약 23%가 최소 1차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다음 주부터 독일내에서도 1회 접종 얀센백신이 개시되어 접종율이 증가될 것임
 - 희귀 뇌정맥동 혈전증으로 유럽에서의 백신 접종 개시가 연기되었지만 이제 EMA와 미국 FDA 모두 승인
 - 독일 니더작센주는 주말에 처음으로 얀센백신이 중앙 창고에 도착하게 되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주는 이미 48,000 회분을 받음
 - 함부르크, 튀링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는 거리의 노숙자들에게 2차 접종 예약이 불필요한 1회 접종 얀센백신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독일에서 6월말까지 약 천만회분 J&J 얀센 백신을 접종하게 될 것으로 예상
3. 백신 캠페인의 좌절, 존슨앤존슨사 독일 공급 감축 (Rückschlag für Impfkampagne, Johnson & Johnson kürzt Lieferungen für Deutschland)

생성기관

Der Spiegel

원문 작성일

2021-4-26

원문 링크

<https://www.spiegel.de/wirtschaft/unternehmen/johnson-und-johnson-kuerzt-lieferungen-fuer-deutschland-a-0ed3f558-b6b6-4c8e-9271-a8eb1cfc53b0>

- 존슨앤존슨사 얀센백신 독일 공급량 삭감 예정
- J&J사의 얀센 백신의 1차 공급분 약 25만회분 공급이 지연된 후 제약 회사는 이번 주에 계획된 2차 공급량을 축소할 예정임
 - 옌스 슈판(Jens Spahn) 보건부 장관은 2차 도입분이 본래 예상 44만4천회분

보다는 삭감될 것임, 제조사는 정확한 공급량을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

-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공급 축소에 이어 얀센백신의 삭감은 독일 백신 캠페인에 대한 새로운 좌절임

- 미국은 J&J 얀센백신 접종 중단한 후 접종을 재개하면서 900만 회분 이상의 얀센 백신을 보유하여 부족하지 않음
 - 볼티모어 공장의 오염으로 1500만 회분을 폐기하고 위생 및 안전 결함으로 인해 추후 공지시 까지 공장을 폐쇄함
 - 얀센 백신은 3월초부터 미국에서 약 8백만회 접종, 반면 EU에서는 지난주에 1차 배송되었으며, 2차분은 축소됨
 - SPIEGEL에 따르면 미국에서 접종되는 J&J 백신은 대부분 유럽 라이덴 지역 자회사 얀센(Janssen)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높음
 - Janssen사는 반복 문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함

4.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97.6 % 효과? (Russischer Impfstoff Sputnik V, Zu 97,6 Prozent wirksam?)

생성기관

Der Spiegel

원문 작성일

2021-4-25

원문 링크

<https://www.spiegel.de/wissenschaft/medizin/corona-impfstoff-sputnik-v-laut-neuen-daten-zu-97-6-prozent-wirksam-doch-die-statistik-hat-luecken-a-b498b1d8-00b0-4902-9273-bb42ff2d059d>

- 러시아 스푸트니크 V 효능 97.6% 발표에 대한 신뢰성
- 러시아직접투자기금(RDIF)의 CEO 키릴 드미트리예프(Kirill Dmitriev)는 스푸트니크 V가 모든 코로나 백신중 최고의 예방율을 나타낸다고 발표
 -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스푸트니크V가 97.6% 효능(3상 연구 91.6% 확인)
- 작센주 크레쉬머 주지사에 따르면 독일은 최소 3천만 회분의 스푸트니크 V

백신을 확보하는 것을 희망

- 유럽의약품청(EMA)는 현재 러시아 스푸트니크 V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으며, 적시에 승인될 경우 독일 인구 6분의 1정도가 접종 가능

○ 러시아직접투자기금(RDIF)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러시아 2차 접종자 380만명 중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조사한 결과를 1월과 3월말 사이에 러시아 전역에서 발생한 감염 수와 비교

- 스푸트니크 V 백신 접종자 감염률은 0.027%에 불과, 비접종 그룹의 감염을 1.1%와 비교 97.6%의 효능을 보임
- 그러나 실시간 데이터를 평가하는 것은 까다롭기 때문에 대규모 연구보다 신뢰성이 떨어짐

○ 비평가들은 러시아가 분석한 대량의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선별하여 발표한 효능 수치라고 비판함

- 지금까지 보도 자료 외에 알려진 바가 거의 없으며 그 결과는 5월까지 전문 저널에 게재될 예정임

○ 스푸트니크 V는 현재 약 60 개국에서 30억명 이상에게 승인되었으며 작동에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음

- 그러나 공개된 데이터에 대한 비판은 항상 있었으며 백신의 명성을 손상시킴, 현재 공개된 데이터로는 신뢰 회복에 거의 적합하지 않음

5. 하루 352.991명 신규 확진, 인도 코로나 변이 통제 불가: 독일에서 B.1.617의 의미는? (352.991 Neuinfektionen in 24 Stunden, Corona-Mutante in Indien außer Kontrolle: Was bedeutet B.1.617 für Deutschland?)

생성기관

RTL

원문 작성일

2021-4-26

- 인도 변이 B.1.617 위험성
- 인도에서 5일 연속 신규 코로나 감염에 대한 세계 기록 경신중, 지난 24시간 동안 352,991건 신규 확진이 보고, 미보고 수치도 매우 높을 가능성이 큼
 - 14억 인구의 인도에서 코로나 변이가 확산되어 글로벌 출발점이 되면 아시아 대륙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 우려됨
- 새로운 인도 변이 B.1.617이 기존 백신에 내성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음
 - 마틴 스투르머(Martin Stürmer) 박사는 기존 백신이 B.1.617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낙관함
 - 크리스티안 드로스텐(Christian Drosten) 교수는 약간의 면역 회피를 지닌 변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변이가 면역계의 항체를 부분적으로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함
 - 그러나 Drosten은 기존 백신을 개선하고 가을에 위험 환자를 재차 접종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에 크게 우려하지 않음
-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와 하이코 마쓰(Heiko Maas) 외무부 장관은 인도에 대한 지원을 약속함
 - Heiko Maas 외무 장관은 산소와 약품 등을 최대한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과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
 - Angela Merkel 총리는 펜데믹과의 전쟁은 공동의 싸움, 독일은 인도와 연대하여 가능한 신속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
- 인도는 1,700만건 이상 감염을 기록, 미국 다음 가장 큰 타격을 입음, 변이 B.1.617외에 만연한 부주의가 질병의 급속한 확산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음
 - 지역 선거와 가면을 쓰거나 안전 거리를 지키지 않는 종교 축제 등 대규모 행사가 있었음

6. 바이오엔텍/화이자 백신접종자의 심근염 사례 : 이스라엘 인과관계 조사 중
(Herzmuskelentzündungen bei Biontech/Pfizer-Geimpften: Israel untersucht Fälle)

생성기관
RTL
원문 작성일
2021-4-26
원문 링크
https://www.rtl.de/cms/biontech-pfizer-herzmuskelentzuendungen-bei-geimpften-israel-untersucht-faelle-auf-zusammenhang-4748354.html

- 이스라엘: 바이오엔텍/화이자 백신 접종자의 심근염 사례 조사중
- 이스라엘 코로나19 방역 통제 코디네이터인 나흐만 아쉬(Nachman Ash) 교수는 5백만명 이상 백신접종자중, 수십건의 심근염 사례가 주로 2차 접종후에 보고되었다고 발표
 - 이스라엘 보건부는 Biontech/Pfizer 백신과 심근염 사례간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있음
 - 심근염 보고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지, 백신과 관련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음
 - 심근염은 종종 합병증없이 진행되며 다양한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질병과 백신간의 인과관계 확인은 어려움
- 화이자사는 이스라엘에서 대부분 젊은이에게서 발생되고 있는 심근염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 일반 인구에서 예상되는 심근염 발생 수치보다 발생율이 낮기 때문에 "현재 심근염이 Pfizer/Biontech 백신 사용과 관련된 위험이라는 증거는 없다 주장
 -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인구 930만명 중 거의 60%가 Biontech/Pfizer 백신을 접종 받았으며, Covid-19의 증상과 중증화를 예방하는 것으로 확인됨

7. 새로운 연구: 1차 백신 접종만으로 코로나 감염 위험 65% 감소 (Neue Studie: Schon die erste Impfdosis verringert das Corona-Infektionsrisiko um 65 Prozent)

생성기관

Business Insider.

원문 작성일

2021-4-26

원문 링크

<https://www.businessinsider.de/wissenschaft/neue-studie-schon-die-erste-impfdosis-verringert-das-corona-infektionsrisiko-um-65-prozent-a/>

- 옥스퍼드 연구: 백신 종류 관계없이 1차 접종후 감염위험 65% 감소
- 영국 통계청 ONS, 보건부와 옥스포드 대학이 공동으로 대규모 연구한 결과 1차 백신 접종으로도 코로나 감염 위험을 약 2/3까지 줄여줌
 - 이것은 어떤 백신 (Biontech/Pfizer 또는 Astrazeneca)이 투여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고 감염 위험은 예방 접종 3주후 65% 감소됨
 - 사전 공개된 연구는 12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약 37만명의 테스트 결과를 조사, 유증상 감염 수는 72%까지 감소됨
 - 두 종류 백신 모두 영국 변이 B.1.1.7에 대해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백신의 효과는 사람들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변하지 않았음
- 그러나 새로운 분석은 예방 접종자도 제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음을 시사함
 - 옥스퍼드 대학 연구원 코엔 파월스(Koen Pouwels)는 무증상 사례의 수가 질병 감염 수와 같은 수준으로 감소되지 않는 사실에서 분명 확인된다 주장
 -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규칙을 계속 따라야 할 필요성을 강조함
- 독일에서는 토요일 오전까지 거의 2,500만회 접종, 인구 8,300만명 중 580만명만이 완전한 보호를 받고 있음

8.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혜택이 큼 : 위험 평가가 어려운 이유 (NUTZEN ÜBERWIEGT, Astrazeneca-Impfung: Warum die Risiko- Abwägung schwer fällt)

생성기관

Merkur

원문 작성일

2021-4-26

원문 링크

<https://www.merkur.de/leben/gesundheit/astrazeneca-impfung-warum-die-risiko-abwaegung-schwer-faellt-zr-90475826.html>

- 전문가 견해: 아스트라제네카 혈전증 위험 과대평가, 혜택이 큼
- 유럽의약품청(EMA) 데이터 분석가 피터 알렛(Peter Arlett) 박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수천만건) 사례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 백신접종의 이점이 위험보다 훨씬 크고 백신은 생명을 구한다고 요약 발표함
- 프랑크푸르트 대학 병원의 산드라 시에섹(Sandra Ciesek) 교수는 언론 보도와 관심 덕분에 혈전증 발병 위험이 실제로 과대 평가됨,
 - "백신이 Covid-19 감염 위험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 주장
- Astrazeneca 백신에 대해 EMA 전문가가 금요일에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뇌혈전증은 평균적으로 백신접종자 10만명중 1 명에게서 발생함
 - 비교하면 뮌헨 연구에 따르면 1차 유행시 코로나 사망률은 0.86%로 추정됨
- 도르트문트 대학, 라이프니츠연구소의 면역학자 카르스텐 왓츨(Carsten Watzl) 교수는 코로나 사망률이 감소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모든 성인의 코로나19 위험이 Astrazeneca 백신 접종후 혈전증 위험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
 - 20세 여성조차도 예방 접종후 뇌혈전증보다 중증 코로나 19 발병 위험이 더 높다고 주장함

9.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아스트라제네카사에 법적 조치 개시 (EU-Kommission leitet rechtliche Schritte gegen Astra Zeneca ein)

생성기관

Süddeutsche Zeitung

원문 작성일

2021-4-26

원문 링크

<https://www.sueddeutsche.de/politik/coronavirus-weltweit-astra-zeneca-eu-1.5276001>

- 백신공급 분쟁으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아스트라제네카사에 소송 개시
- 유럽연합 집행위 대변인은 월요일 벨기에 법원에서 27개 회원국을 대신해 아스트라제네카사에 소송 절차가 시작되었다고 발표
 - 영국-스웨덴 제조업체는 지난 몇달 동안 유럽연합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을 대폭 줄여, 1분기에 1억2천만이 아닌 3천만 회분만 공급
 - 2분기 계획은 1억8천만 회분에 합의되었지만 최신 정보에 따르면 2분기 공급 7천만 회분이 예상됨
- 유럽연합의 관점에서 제조사는 2020년 8월 체결된 기본 계약을 위반함
 - EU 집행위는 총 3억 도스 AstraZeneca 백신을 주문함, 1억 도스 추가 공급 옵션은 사용하지 않음
 - 영국은 공급 문제가 없었기에 EU와 제조사간 관계는 경직되었고, 유럽연합은 수출 통제 메커니즘을 도입하기도 함
 - 이탈리아에서 호주로 25만 회분 Astra Zeneca 백신 선적이 차단됨
 - Astra Zeneca 백신은 희귀한 뇌정맥동 혈전증 사례로 현재 많은 EU국가에서 제한적으로만 사용, EMA는 여전히 제한없이 사용을 승인함

10. 백신 정상회담 이후, 이것이 백신 접종자와 감염 회복자들을 위해 계획됨 (Nach Impfgipfel, Das ist nun für Geimpfte und Genesene geplant)

생성기관

Tagesspiegel

원문 작성일

2021-4-26

원문 링크

<https://www.tagesspiegel.de/politik/ab-juni-kann-jeder-einen-impftermin-beantragen-impfgipfel-von-bund-und-laendern-das-sind-die-ergebnisse/27132006.html>

- 연방·주정부 백신 회담 결과: 6월부터 누구나 접종 신청 가능
- 독일 연방·주정부간 백신 정상 회담 결과, 메르켈 총리는 백신 접종자의 기본권 회복 등 첫 번째 완화 계획을 발표
 - 메르켈 총리는 로버트 코흐연구소의 새로운 연구결과를 강조, 백신 완전접종 14일후, 2차 접종 완료자는 더 이상 실제 감염 위험이 없어 더 많은 자유가 가능함을 강조함
- 백신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주요 협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1) 예방 접종 우선 순위 폐지: 늦어도 6월까지 백신 우선순위가 해지되어 모든 사람이 백신 접종을 예약 신청할 수 있음
 - 2) SputnikV는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유럽의약품청(EMA)의 승인 절차를 강조,
 - 현재 문서는 승인에 충분하지 않으며, EU 승인시에만 Sputnik V를 주문하는 것이 합리적임
 - 3) 백신 접종자와 감염후 회복자는 신속검사와는 다른 대우:
 - 튀빙엔이나 자알란트와 같이 신속 테스트 음성 결과를 쇼핑 또는 식당의 입장권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 신속 검사는 100% 신뢰할 수 없음
 - 백신 접종자와 회복자는 감염 위험이 적어 향후 신속 항원검사 음성 결과를 제시하는 사람과는 시민 기본권과 관련 다르게 평가되어야 함,
 - 4) 백신접종자 및 회복자 규제 완화: 첫번째 단계로, 백신접종자는 7일 발병률이

100이상(§ 28bIfSG 근거)에서 검사를 받은 사람들과 동일한 예외 적용

- 테스트 없이 상점, 예약 쇼핑(Click & Meet), 미용실 방문 등을 활용, 문화 행사 나 축구 경기 참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총리는 백신 접종자가에게 무엇을 허용할지 규정을 계획중, 연방 하원과 상원의 승인이 필요함
- 6개월전 감염에서 회복된 사람과 6개월 이전에 유럽연합 승인한 백신을 완전(대부분 백신은 2차) 접종한 사람이 포함됨

5) 어려운 기본권 논쟁 : 백신접종자 혜택과 미접종자 처우 불만에 논쟁

- 크리스티네 람브레히트(Christine Lambrecht) 법무부 장관은 백신 접종자에 대한 혜택에 대해 미접종자들이 분명히 기본권 반환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
- 쇠더(Söder) 주지사는 백신 접종이 가치가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
- 베를린 뮐러 시장은 더 많은 사람이 2차 접종을 받고 있으니 결정을 5월에 내려야한다고 주장
- 하이코 마스(Heiko Maas) 외무 장관은 이미 1월에 백신접종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식당이나 영화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함
- 전 법무장관인 자유민주당(FDP) 사비네 로이터이셔-슈나렌베르거(Sabine Leutheusser-Schnarrenberger)는 백신 접종 시민은 즉시 모든 자유와 기본권을 되찾아야한다고 강조, 그 밖의 모든 것은 단순히 위험이라고 주장

6) 휴가 여행, 호텔 및 레스토랑 : 여름 휴가는 "기본 발생률이 얼마나 높은가"에 달려 있음, 호텔 재개장 시기는 향후 발병 상황에 따라 결정됨

- 메르켈 총리는 2020년 여름과 비교, 당시 7일간 발생률은 10만명당 5~10건에 불과, 항공 교통을 완화하는 것은 분명함
- 안드레아스 쇼이어(Andreas Scheuer) 교통부 장관은 백신 접종자가 항공 여행시 음성 테스트 제출이나 격리가 면제되길 희망
- 예외: "바이러스 변이 지역에서 들어올 때는 변이 유입 위험으로 면제 불가
- 여름 휴가철에 예방 접종을 받은 부모는 접종 증명서를 제시 할 수 있지만 자녀는 여전히 음성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음

- 7) 이민자들의 예방 접종 의지가 낮음 : 옌스 슈판(Jens Spahn) 보건부 장관은 이민자들의 백신 접종 의지를 높이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지적
- 쾰른 등 도시 지역에서 특히 많은 새로운 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러시아계 독일인과 무슬림 신앙 이민자들이 특히 백신 접종에 대한 의지가 낮음
 - NRW주 보건부 장관 칼스 요셉 라우만(Karls Josef Laumann)은 이동 예방 접종팀 운영을 장려, 노숙자 접근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존슨앤존슨 얀센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주장
- 8) 요양원 및 양로원 규칙: 퇴직자 및 양로원에 대한 2차 예방접종 2주 후에는 다시 방문을 확대하고, 거주지역별 단체 프로그램을 다시 시행 가능
- 9) 마스크 착용은 지속적 유지: 마스크 착용 의무와 최소 1.5m 안전 거리 규정은 백신 접종자에게도 지속적으로 적용됨
- 10) 기업 의사에 대한 기대: 가정의의 참여 이후 기업이사들이 백신 접종에 참여하면 직장내 접종 속도 제고에 도움이 됨

11. 코로나 뉴스 라이브 블로그 (Live Blog Coronavirus-Pandemie)

생성기관
Tagesschau
원문 작성일
2021-4-26
원문 링크
https://www.tagesschau.de/newsticker/liveblog-coronavirus-montag-195.html

코로나 단신 업데이트

감염방지법에 대한 소송 점차 증가(Immer mehr Klagen gegen Infektionsschutzgesetz)

- 연방헌법재판소에 전국적인 감염지법과 “비상 브레이크”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점점 증가, 현재 65건 이상 소송이 계류중임

- 좌파당, 예방접종 우선순위 해제 반대 (Linke gegen Aufhebung der Impfpriorisierung)
 - 좌파당 공동대표 Susanne Hennig-Wellsow는 코로나 예방접종 우선순위 해제에 반대, 기저질환, 사회적 위험 집단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

- WHO 중국 백신에 대한 결정 기대 (WHO erwartet Entscheidung über China-Impfstoffe)
 - 세계보건기구(WHO)는 중국의 두가지 백신에 대한 긴급 승인을 수일내에 결정할 예정(Sinopharm 백신은 이번 주말, Sinovac Biotech 백신은 다음 주경에 결정 예상)

- 미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회 수출 희망(USA wollen 60 Millionen AstraZeneca-Impfdosen exportieren)
 - 미국 백악관은 미국이 보관하고 있는 AstraZeneca 백신 최대 6천만분을 다른 국가에게 공유할 계획이라고 발표
 - 미국 정부는 이미 지난달 멕시코와 캐나다에 약 400만회분 백신을 전달함

- 윤리위원회 위원장: 백신 접종자의 자유는 사회적 "불균형"을 위협 (Ehtikratsvorsitzende: Mit Freiheiten für Geimpfte droht "Schiefelage" in der Gesellschaft)
 - 독일 윤리위원회 Alena Buyx 위원장은 백신 접종자와 감염후 회복된 사람들을 위해 연방정부가 계획한 완화를 옹호함
 - 백신접종자들과의 미접종자간 "불일치"로 위협을 받는 어려운 전환 단계가 예상되며 이는 신속한 백신 접종을 통해 가능한 짧게 유지되어야 함을 주장